주님 부활 대축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2020년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월영본당)

주일 전례

제 1 독 서	사도 10,34ㄱ.37ㄴ–43
화 답 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제 2 독 서	콜로 3,1–4 또는 1코린 5,6ㄴ–8
복 음	요한 20,1–9 또는 마르 16,1–7

주일 전례

▶ 교구장 담화문 4~5면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홍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코로나 대유행의 극복을 위한 교황님의 교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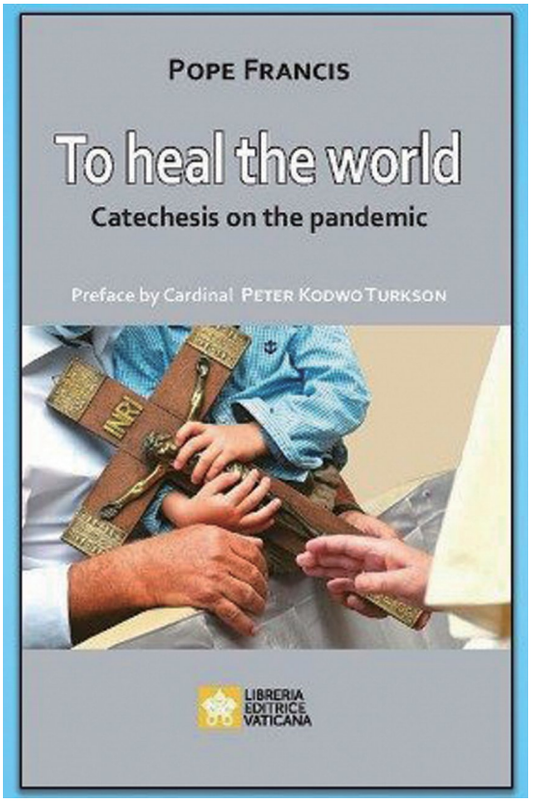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광주가톨릭대학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코로나 위기와 이의 극복을 위한 영성적 성찰을 담은 강론을 모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라는 제목의 교리서를 바티칸 출판사를 통해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서언에서 이 책의 출간을 기획한 교황청 인간 발전부의 수장 피터 턱슨 추기경은 “우리가 이 위기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며 가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교리서가 이 시대의 훌륭한 안내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세 가지 신앙의 신호등인 신덕, 망덕, 애덕**과 함께 **복음 ‘순례’의 길**에 신앙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돌봄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갖가지 취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정입니다.

이 책은 교황님께서 2020년 8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 수요 일반 알현에서 하신 강론 모음집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룩한 교회의 교리적이고 영성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한 신앙 길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 행하신 교황님의 말씀이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합니다. “저의 희망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미래 세대에 희망을 심어주며,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 데 모든 이가 함께 성찰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턱슨 추기경은 코로나가 최고조로 로마를 휩쓸었던 지난해 3월 27일 텅 빈 성 베드로 대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시는 교황님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세상의 고통과 절망을 안고 있는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을 연상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턱슨 추기경은 최근 세상은 세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2008년~2009년의 경제 위기, 그리고 최근의 환경 위기와 코로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때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위기는 ‘새로운 접근’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며, 체념보다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자고 촉구하였음을 소개합니다.



교황님의 교리서는 치유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이들과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교리서는 **‘사회적인 불의의 근원’,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의 중요성’, ‘코로나 대유행의 치유’, ‘무관심의 태도에 대한 논박’**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불평등은 불평등한 경제 성장의 결과**임을 밝히고, **재화의 올바른 사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핵심은 모든 계층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랑의 문명’을 건설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민의 연대와 역량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소중하게 보존해야 할 창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파견되신 **‘우리의 치유자’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교리서의 결론에서는 이 길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면서, 이 여정을 만나게끔 도와주며, 개인이나 가족, 공동체 차원에서 질문하고 다양한 주제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것을 격려합니다.

미얀마의 중첩된 폭력적 상황: 정치적 폭력 사태와 경제적 위기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2월 1일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의 가난한 이들과 취약한 이들의 상황이 이미 코로나 사태와 더해져 너무나 악화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지난 군부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시위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은 **정치적 폭력 사태**뿐 아니라, 더욱 개탄할 만한 **경제적 마비 상태**에서 군부에 맞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식료품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필품의 생산 공급 시장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위험과 고통의 신호는 매 끼니를 아슬하게 해결해야 하는 취약 계층의 시민들에게 더욱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식료품 가격의 상승 조짐이 보였다면, 지금은 가난한 이들과 취약 계층의 가족 식탁에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미얀마는 수도 양곤을 중심으로, 지난 3주 사이에 쌀값이 4% 인상되었고, 주된 식료품 중의 하나인 팜유는 20%나 인상되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더 치명적이어서 쌀값이 무려 35%까지 인상되었으며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의 식당 음식값이 27%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의 통제 불능의 인상은 곧바로 **빈익빈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미얀마 국민은 대략 50% 가깝게 그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경제적 둔화와 실용 경제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유엔 국제 식량 계획의 한 관계자는 **"평화와 대화가 사라질 때, 굶주림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온다"**라고 증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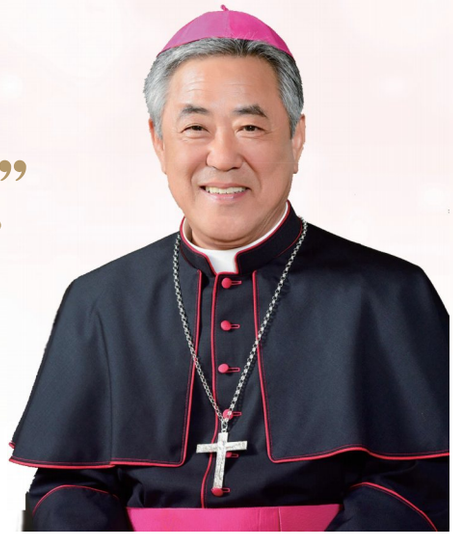
이 지점에서 **국가적인 정치적 안정과 함께 인도주의적 지원**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에 봉착한 미얀마에서는 백만 명의 국민이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35만 명 정도의 국민이 난민 수준의 국내 이주 중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 인도주의적 도움과 보호가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의 '계속되는 유혈 사태'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러한 무자비한 폭력 앞에 한 용감한 수녀님(안 누 타웅 수녀)이 그러하였듯이, **'나 역시 미얀마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감한 수녀인 안 누 타웅 수녀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서려는 교황님께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폭력 상황은 미얀마 사태를 보듯이, 인간의 전반적인 삶을 파괴합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주님의 수난은 이 폭력의 순환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종식이야말로 인간 생명 회복의 길임을 확인하는 부활**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미얀마를 부활시킬 방안을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출처:https://www.vaticannews.va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요한 14,6)



1. 미안한 마음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성춘초목심(城春草木深)
나라는 깨졌지만 산하는 여전하니
성 안에도 봄이 왔다고 초목이 우거지네

나라의 비운을 겪었던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춘망(春望 봄날의 소망) 첫 구절처럼 가중되는 코로나로 수상한 정치 현실로 우리 국민 모두의 마음이 갈라지고 거칠어져 분노조절장애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 엄동에 피어 추위에 떨었던 저 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합니다. 봄이 왔다고, 그러지 말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부활의 길을 가자고 손짓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알겠고 고맙기도 하지만 약을 잘못 먹었는지 도무지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 오래오래 복용했던 습관이라는 약이 우리를 관성의 감옥에 갇혀버리게 한 모양입니다.

며칠 전 저녁 식사 후 교구청 주교관 앞뜰에 누군가 차를 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퇴근한 후라 주차장이 거의 비어 있어서 아무 데나 적당히 파킹해도 되겠다 싶은데도 바닥 규격 위에 똑바로 세우려고 한참이나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귀해서 기다렸다가 그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작은 미소로 답해주는 순간 저는 왠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에게 도덕적인 빚을 지고 있다는 미안함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늘 빚을 지고 삽니다. 깜깜한 이른 새벽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더러운 오물을 수거하는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담보로 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낮은 임금이나마 생계를 버텨보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일 뿐입니다.

2. 생명

나아가 사람은 사람에게만 서로 빚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체에게 더 큰 빚을 지며 살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그것이 살아 있는 한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의 생명을 얻어 취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 대해서 마치 원죄와도 같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우리 인간은 그들의 값진 희생을 우리 자신들의 보다 나은 도덕적인 삶으로 갚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에덴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한 그루만 있은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생명나무와 함께 두 그루가 있었다고 합니다.(창세기 2,9) 우리는 모두 생명 자체이시며 생명 있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느님의 생명나무에 어떤 식으로든 생명으로 참여(participatio)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진리

그렇습니다. 에덴동산 한가운데 귀하게 마련된 생명나무가 그렇듯이 그 곁에 조심스레 심어진 선악과의 주인도 하느님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고 하신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인간에게는 그 마지막 답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하느님께만 유보(留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노자(老子)의 도덕경 첫머리에 나오는 도가도비상도(道可道非常道)를 풀이하면, 도를 인간의 언어로, 개념으로 도라고 규정하면 그건 더이상 도가 아니다라는 뜻인데 노자의 이 깊은 뜻에 따라 적폐를 적폐라 하면 더이상 적폐가 아니다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뜻은 오래오래 누적되어 온 폐단을 적폐라고 누군가 규정할 때 그 규정하는 잣대,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시금 그 기준(criterium)의 적법성이 의문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진위의 잣대는 인간이 마지막까지 휘두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때 다시금 인간은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서로에게 늑대가 되고 맙니다. 진리는 우리 손만으로 쟁취·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진 진리(요한 17,17 참조)를 그렇다! 그렇구나!를 반복해서 깨달으며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4. 십자가의 길

끝내 사랑했던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며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일찍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와 함께 생명이시며 진리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길이 되셨습니다.(요한 복음 주해 Trac. 34,8-9) 그 길은 모든 생명을 살리고 부활케 하는 길이며 모든 선과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길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피흘려 마련하신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하느님께로 가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이 되었으니 그것이 코로나든 그것이 피폐함이든 더이상 인생이 주는 고달픔 속에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 11,25-26) 예, 주님.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뭇 인간들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2021년 주님 부활 대축일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교구장 동정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종신 서원

일시: 4월 10일(토) 10:30
장소: 수녀회 본원 성당

교구/본당

성직자 묘역 성묘

일시: 4월 5일(월)
장소: 고성 이화공원묘원 성직자 묘역

예신, 여성소 모임

일시: 4월 11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청년로고스 성경통독피정

일시: 4월 17일(토) 13:00~18일(주일) 15:00,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통독범위: 루카 복음
대상: 성경에 관심있는 청년, 선착순 20명 마감
참가비: 6만 원
준비물: 성경(주교회의 성서위원회 편찬, 전자기기 어플 제외), 마스크, 텀블러, 필기도구, 세면도구(수건), 미사 준비, 시계
신청: 4월 11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채널 '@청년부'

상반기 교리교사 연수

일시: 5월 2일(주일)-진주·거제지구 09:30~17:30
5월 9일(주일)-마산·창원지구 09:30~17:3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주제: "당신이 천주교인이오?"
강사: 김영구 요한사도 소장 (한울청소년교육문화연구소)
내용: 여름 신앙학교 프로그램 소개
대상: 주일학교 교리교사 (1, 2차 각 선착순 100명)
참가비: 1만 5천 원(참가비는 연수 당일 현금으로 받겠습니다.)
준비물: 마스크, 필기도구, 텀블러, 편안한 복장
신청: 4월 18일(주일)까지
문의: 주일학교부 055·249·7051~2
카카오톡 채널 '마산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부'
▶유의사항- 본당별 초등부/ 중고등부 각각 5명 이하로 신청 가능,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연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기관/단체

세월호 7주기 추모미사

일시: 4월 16일(금)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교구 정의구현사제단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민족화해를 위한 평화학교

일시: 4월 25일(주일) 10:30~12:00
장소: 여좌동성당
내용: 주일미사, 평화공연, '평화사도직' 강연
주최: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교구 민화위 055·261·8201

206차 ME주말 안내

일시: 4월 16일(금) 19:00~18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대상: 혼인한 지 3년 이상 된 부부
신청: 4월 9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접수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E-mail: mun760216@hanmail.net

기 타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중앙우체국사서함5234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 원
문의: 02·2274·1843,4/ 홈페이지: cdcc.co.kr

2021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추가): 4월 16일(금)까지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제주 성지 순례 3일/ 4일
4. 23.(금)~4. 25.(주일)/ 5. 4.(화)~5. 6.(목)
5. 17.(월)~5. 20.(목)/ 5. 31.(월)~6. 2.(수)
■한국 성지 167 완주
5. 10.(월)~5. 13.(목) 대전교구 4일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진주항외과의원
- 치핵(치질)/ 변비치료 - 피부 점/ 티눈 제거 수술
- 피부 혹 제거 수술 - 화상 및 상처 치료
- 귀두 표피 환상 절제술 - 각종 예방접종
진주시 중안동 16-16번지 2층 (시내 교육청 앞)
TEL. 055) 748-0975
조영현 라파엘 박미리 엘리사벳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410g(포도잼은 9월 말부터 구매 가능)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문의: 02·745·8339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성골롬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4월 11일(주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또는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신자
문의: 010·3817·0567, columban.or.kr

제주 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일시: 4월 11일~14일(추)/ 4월 16일~18일/
4월 21일~24일(추)/ 4월 26일~28일/
5월 1일~3일/ 5월 8일~11일(추)
문의: 02·773·1463, 064·756·6009

예수마음기도 영성 수련(권민자 수녀)

일시: 1박 2일 – 4월 24일(토)~25일(주일)/
5월 8일(토)~9일(주일)
3박 4일 – 4월 29일(목)~5월 2일(주일)/
6월 4일(금)~7일(월)
8박 9일 – 4월 8일(목)~16일(금)/
5월 17일(월)~25일(화)
40일 – 4월 6일(화)~5월 15일(토)
6월 15일(화)~7월 24일(토)
장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마산가르멜산의 성모재속회원 모집

일시: 5월 17일(월) 10:00
(셋째 주일 지난 월요일)
장소: 진동 가르멜 수도원 피정의 집
대상: 만55세 이하 남녀 가톨릭 신자
문의: 010·8525·1150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장소: 마음의집(창원시 도계동)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010·3551·2038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미사

일시: 4월 9일(금) 19:30
장소: 상남동성당
공동주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교구 정의구현사제단, 교구 창원이주민센터
문의: 교구 정평위 055·261·8201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종신 서원

종신서원 예정자:
강보희 프란치스카ASC 수녀
일시: 4월 10일(토) 10:30
장소: 그리스도의 성혈 흠숭 수녀회 본원 성당
주례: 교구장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
▶ 코로나19로 인해 최소인원으로 거행되오니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 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원하는날(미리연락)	원하는 곳	010·9353·1773(우 노아 수녀)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여성

제15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홍보국(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목)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E-mail,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례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겉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수정 성모 트라피스트 수녀원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살아나셨음을 기뻐 용약하는 우리 주님 부활의 알렐루야가 우리의 들숨 날숨으로, 온 세상과 우주로 울려 퍼집니다.

"무리가 그를 보고 기막혀 했었지. 그의 몰골은 망가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었고 인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제 만방은 그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제왕들조차 그 앞에서 입을 가리우리라. 이런 일은 일찍이 눈으로 본 사람도 없고 귀로 들어 본 사람도 없다."(이사 52,14-15)는 이사야 예언자의 그 예언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에게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성부께 아담의 죄 갚으시고, 거룩한 당신 피로 옛 죄 씻으시어, 그 피로 우리 마음 거룩하게 하시고, 세속의 온갖 죄악과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음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의 승리자로 부활하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구원하시려 아들을 넘겨주신 헤아릴 길 없는 아버지의 이 사랑과 자비에 깊이 탄복한 나머지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씻은 죄. 오, 복된 탓이여!" 라고까지 찬송한 우리 교부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 예수님께서는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마르 16,6-7 참조)라는 소식을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병고와 실직으로 낙담하며 절망과 우울 속에 지내는 이들, 특히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환경 속에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이들, 군부의 쿠테타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는 미얀마와 다른 모든 폭력에 노출된 이들 등 변함없이 가난한 이들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폭력과 살상, 불화와 갈등이 혼재하는 온 인류 각자의 갈릴래아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겠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뵙게 되리라는 천사의 전갈이 우리에게 도착하였습니다.

일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아픔과 고통, 죽음 속에서 약동하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사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고 흠 없으며 탓할 데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하느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니(콜로 1,22 참조), 우리 안에 있는 현세적인 것들 곧 불륜, 더러움, 욕정, 나쁜 욕망, 탐욕, 분노, 격분, 악의, 중상, 수치스러운 말(콜로 3,5.8) 따위들을 모두 버리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모상에 따라 끊임없이 우리를 새로이 창조하는 새 인간으로 변모되어 가는 충만한 구원의 시기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